

<b>배포일시</b>	2019. 11. 8.(금) 09:30 (총 2매)	<b>보도시점</b>	<b>즉 시</b>
<b>담당부서</b>	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	<b>담당자</b>	과장 김동진
		<b>전화번호</b>	062-720-0343

**광주, 오늘(8일) 첫 서리 관측**  
 - 작년보다 7일 늦고, 평년보다 4일 늦음 -

□ 밤 사이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, 맑은 날씨로 인해 복사냉각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전남내륙 일부 지역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기온이 나타났으며, 광주에는 첫 서리가 관측되었습니다.

○ ‘서리’는 기온이 어는점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대기중의 수증기가 지표면이나 물체 표면에 얼음결정으로 붙는 현상을 말합니다.

□ 광주 첫 서리는 작년보다 7일 늦게 나타났고, 평년보다 4일 늦게 나타났습니다. 오늘 아침 첫 서리 관측 시 광주 아침최저기온은 4.9℃를 기록하였습니다.

지역	금년(2019년)	작년(2018년)	작년비	평년	평년비
광주	11.8.	11.1.	7일 늦음	11.4.	4일 늦음

※ 전남지역의 서리 관측지점 목포, 여수, 흑산도에서는 현재 서리가 관측되지 않음

※ 평년: 1981~2010년

□ 광주·전남 주요지점 아침최저기온(8일 03:01~09:00/단위 ℃)

구분	광주	월야(함평)	화순북(화순)	황전(순천)	곡성	담양	나주
아침최저기온	4.9	-1.7	-1.5	-1.5	-1.4	-0.5	-0.2

□ **광주 첫 서리(2019. 11. 08.)**

〈광주지방기상청 관측장소에서 관측된 첫 서리〉

